“4년간 진심 담은 작품, 광주 관객 만남에 설레기도…두렵기도…”

연극 ‘푸르른 날에’ 광주 공연(13~22일) 앞둔 김학선·정재은·이명행·조윤미씨

“웃음과 눈물로 그려낸 ‘5월 광주’ … 밑바닥 진정성 봐 주길”

연극 ‘푸르른 날에’에 출연하는 주연배우 김학선·정재은·조윤미·이명행씨(왼쪽부터).

2011년 서울 초연 당시 대한민국 연극상 작품상·연출상 등을 휩쓴 연극 ‘푸르른 날에’는 오월 광주를 웃음과 눈물로 풀어낸 작품이다. 1980년과 그 이후 30년 세월을 거쳐가는 작품은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연인 민호와 정혜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고선웅이 각색과 연출을 맡은 연극 ‘푸르른 날에’는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압권이다. 적재적소 캐스팅과 파워풀한 앙상블 연기가 볼만하다. 초연 때 참여했던 출연진 19명(운화 역만 바뀌었다)이 4년째 그대로 다시 무대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다.

초연 후 매년 5월이면 같은 장소(서울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됐던 ‘푸르른 날에’가 광주 공연(13일부터 22일까지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을 갖는다. 광주 방문을 앞둔 4명의 주연배우를 만났다. 과거와 현재의 민호와 정혜역을 맡은 김학선, 정재은, 이명행, 조윤미씨다.

배우들은 모두 광주 공연에 기대감,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초연 때부터 광주에서 공연하고 싶었고, 4년 동안 진심을 담은 공연이 광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궁금해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반응,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지 궁금해요. 기대감도 있구요.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광주에서는 끝나고 어떤 말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김학선)

아마도 이번 작품에서 관객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던질 인물은 젊은 민호역의 이명행 씨일터다. 물고문을 당하고 개목걸이를 한 채 끌려나다니는 육체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변절 등 가장 많은 감정의 진폭을 표현해내는 그의 연기는 발군이다.

“민호는 당대에 문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80년 당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자체에서 충격을 느껴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죠. 연기하면서 충격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과 감정의 조화가 어려웠어요. 도청 장면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과거 정혜 역할을 맡은 조윤미씨는 “연인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물고문 장면 때 무대 뒤에서 편하게 있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민호인 여산 스님 역의 김학선씨 역시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5월이 될 때마다 아빠는 왜 머리를 깎냐고 아이들이 그러더군요.(웃음) 해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산 역할을 하려해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가장 푸르른 날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화해나 과거를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예요. 극중 대사 처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삶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산의 번민과 고뇌를 넘어 한단계 더 나아갔으면 싶습니다.”

현재의 정혜 역을 맡은 정재은씨는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배우로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개 공연을 하다보면 몇회차가 진행되고 나서 좋아지는데 올해는 첫 공연 때부터 그 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스토리나 이런 게 거의 달라진 건 없는데 다른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배우들의 연기가 그만큼 깊어진 것 같아요. 감정선의 디테일도 살아있고.”

배우들이 뽑은 명장면은 어떤 것일까.

“현재의 정애와 여산이 함께하는 피날레 장면이 좋습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 모습이니까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할 사람들이었는데 싫어서 안타깝기도 하구요. 여산이 딸이자 조카인 운화에게 ‘잘 자라주었구나’ 이야기하는 장면도 뭉클해요. 여산과 현재의 정애가 만나 아직도 그곳에는 뻐꾸기가 우느냐고 이야기할 때 아프지만 사랑했던 기억들을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정재은)

“엔딩은 인상적이면서도 마음이 가장 아픈 장면이죠. 민호가 도청에서 추하게 살아남고 이후 겪게 되는 과정 등이 재현되는 장면을 여산이 직접 지켜 보는 장면은 정말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김학선)

“도청신에서 김남주의 ‘학살 2’를 연대 낭송하는 부분입니다. 또 민호가 고문을 받을 때 김남주 시인의 ‘진혼가’를 읊조리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이명행)

“시민군들 장면을 좋아합니다. ‘다이아나’ 등의 노래를 부르던 순박하고 서로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날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아련하고 아프고 그래요.”(조윤미)

김학선씨는 ‘푸르른 날에’의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초연 당시 작품이 명랑 신파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웠죠.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내도 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풀어낸 게 작품에 좋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극 기법, 양식적인 한 방법일 뿐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다가가시면 좋겠어요. 작품 그 밑바닥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티켓 가격 4만5000원~2만5000원. 문의 062-220-0541.

/서울=김미은기자 mekim@

과거 민호役 이명행씨

‘5월’에 충격받은 젊은이 감정 표현 쉽지 않았죠

과거 정혜役 조윤미씨

극중 연인 물고문 장면에 무대 뒤에서도 편치 못해

현재 민호役 김학선씨

단순 화해·과거 청산 아닌 다시 일어서자는 메시지

현재 정혜役 정재은씨

공연때마다 새로운 느낌 배우들 연기 깊어진 덕분

해남 출신 윤금초 시인 ‘유심작품상’ 수상

‘낮달 또는 수월관음도’

해남 출신 윤금초 시인<사진>의 ‘낮달 또는 수월관음도’가 시조부문 올해의 유심작품상에 선정됐다.

유심작품상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발행하는 월간 유심이 작품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196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부’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들어선 윤금초 시인은 제3회 한국시조대상(2013년), 가람시조문학대상(2006), 1993중앙시조대상(1999) 등을 수상했다.

시 부문에서는 신달자 시인의 ‘종소리’, 평론 부문에선 문학평론가 장영우 교수(동국대)의 ‘불교적 문학관의 가능성’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상금은 각 부문 2000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8월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

액티브 시니어 전통음식 강좌 광주전통문화관 수강생 모집

중장년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전통음식 강좌가 올해도 이어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6일까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전통음식 강좌 제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제5기 프로그램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17호 이애섭 선생 및 이수자와 함께 오디전통주, 연포탕, 닭장국 등 9가지 남도음식을 배워볼 예정이다.

오는 26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5만원, 재료비는 별도.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

일상의 스펙트럼

옥과미술관 노여운·정다운전… 내달 17일까지

◀노여운 작 ‘포근하다’

도립 전남옥과미술관은 7월17일까지 젊은 작가 노여운·정다운씨를 초대해 미술관 아산 1실에서 ‘기억의 하루, 하루들’전을 연다.

두 작가는 소소한 풍경과 일상에서 소재를 찾아 암묵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담담하게 다가오는 풍경과 사물을 자유롭게 펼쳐놓는다.

노씨는 카메라와 스케치북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 작품에 담았다. 고단한 현실과 막막한 삶의 냄새가 잔뜩 담긴 풍경들처럼 보이지만 작가를 통해 여과되면서 포근한 생명과 친근함이 더해진 풍경으로 다시 태어난다.

전남대 미대를 졸업한 노씨는 무등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으며 ‘괜찮은 하루’, ‘V-Party’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정씨 작품 속 소녀의 표정은 왠지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몽환적인 느낌이 더해지면서 경쾌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남대 미대를 졸업한 정씨는 점 : 핑’, ‘쫀쫀한 여고생’, ‘잉여인간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1-363-72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바람도 시간도 쉬어가는 천혜의 자연 신안으로 오세요!

우리지역을 이끌어 갈 여러분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신안군청 임직원 일동 / 신안군의회 임직원 일동 / 농협 목포·신안군지부 임직원 일동 / 신안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 신안교육지원청 임직원 일동 / 한국전력 신안지점 임직원 일동
신안군산림조합 조합원 일동 / 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 지사장 박종호외 임직원 일동 / (주)찬유전력 대표이사 최진기외 임직원 일동 / (주)보경전기 대표이사 이상선외 임직원 일동